

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

기본방향

인재가 모여들고 마음껏 연구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 도약

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생태계

1 미래를 이끌어 나갈 **우수 과학기술 인재**를 확보하겠습니다.

① 과학자 위상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**국가과학자*** 제도 신설

*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연구자 5년간 100명 선정 → 연구활동지원금(연1억원) 등 제공

② AI 차세대 인재 AI로 혁신을 선도하는 **과학기술-AI 융합인재** 신규 양성*

* 충북·광주 AI 영재학교 신설 등 AI 과학·영재학교 확대, 지역 과학기술원의 AX혁신 허브화

③ 해외 인재 '30년까지 해외 **우수인재 2,000명 유치** 및 유학생 정착 지원*

* 유학비자 개선(인턴허용 6개월 → 12개월, 구직기간 2년 → 3년),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(4대 과기원 → 일반대학교)

2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**매력적인 생태계**를 만들겠습니다.

① 이공계 학생 학비 등 **경제적 부담 완화***

*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('25년 1.3% → '30년 10%), 스타이펜드('25년 35개교 → '26년 55개교)

② 청년·신진 연구자 공공부문 **일자리 확대***, 창업 등 민간일자리 창출

* (대학)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, (출연연)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(연 600명 내외)

③ 재직 연구자 기초연구 확대, 학연 겸직 활성화 등 **매력적인 연구환경** 조성

• 소규모·장기 기본연구 복원*, 주요사업 연구기간 연장**으로 안정적 연구 지원

* '26년 신규 과제 2,790여개 ** 기본연구 3 → 5년 | 핵심연구 3~5 → 5년

인재가 모여 혁신선도

혁신성과가 인재 유인

3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 **연구자의 연구몰입**을 지원하겠습니다.

① 행정부담 제거 연구비 관리체계를 연구자 **자율·책임 중심**으로 전환

* (예) 회의비 등 직접비의 10%는 자율사용,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

• 부처별로 다양한 행정서식을 필수서식으로 최소화, 그 외 자료요구 금지

② 연구효율 극대화 연구행정, 장비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

* 기관이 Staff-Scientist(테크니션, 연구행정인력 등) 고용·지원하도록 블록펀딩 지원

• 출연연 **PBS 폐지**로 과제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

4 **과감한 도전**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.

① 혁신도전 최고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**도전적 임무 전용트랙** 구축

※ (예) AI, 양자 등 미래의 기술패권을 선점할 전략기술 육성 'NEXT 프로젝트' 추진 (범부처)

※ 최고의 민간전문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중심의 과제 전주기 책임 운영

② 평가시스템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**평가등급제를 폐지**하고 혁신성 중심 과제 선정, 성과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하여 **'실패의 자산화'**

※ 안전한 목표만 추구하는 등급제 평가 → 혁신성 중심 정성평가,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

• 우수 평가위원 풀(6,000명) 확보, 평가위원 실명제 등 전문성·책임성 강화

5 **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**을 만들겠습니다.

① 예측가능한 R&D투자

• 정부 총 지출 대비 **5% 수준** R&D 예산 확대

• 적재적소 배분을 위해 투자관리 AI 도입

③ 지역자율R&D

• 기존 하달식 R&D → **지방정부가 스스로** 기획·수행

•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강화(과기원 수준)

② 연구데이터 개방공유

• 보다 많은 데이터를 관리(현 1% 수준) 및 공유하여 더 혁신적인 다음 연구로 이어지는 확산 체계 구축

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